

전남을 농수산 벤처·관광·바이오화학 요람으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전국 12번째

창업센터 설치·국제 웰빙 관광지로 육성
석유화학 대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남센터)는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농수산 분야 청년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남이 세계적인 정정 웰빙 관광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390억원의 펀드를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레지던스형 창업공간=전남센터의 총면적은 2978㎡로, 이 가운데 본관이 2370㎡, 숙소가 608㎡다. 이 숙소는 모두 21실로, 입주벤처, 멘토, 벤처자본(VC) 등이 입주해 장기간 체류하며 벤처 창업에 나서게 된다. 본관에는 창업지원특화센터, 창업캠퍼스, 시제품제작실, 컨설팅실 등이 들어가고, 목포에는 132㎡ 면적의 아이디어 상담실 및 화상창업상담실 등이 별도 운영된다. 전남센터는 농수산업 벤처 창업지원 등 12개 분야 95개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살리코넬라'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 농업도시 '살리나스밸리'가 손을 잡고 농업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식품벤처창업아카데미, 농장실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박람회는 물론 해조류·천일염·드론 등을 이용한 각종 시범사업도 벌인다.

◇농수산벤처 창업·육성 1번지는=전

남센터는 국내 최고 농수산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의 관련기관과 함께 농수산 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심 거점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통합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수원), 농업정책보급금용원(서울), 농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안양), 귀농귀촌종합센터,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9개소), 창업보육센터, 전남도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거나 협업을 예정이며 농식품 혁신코디네이터 5명이 상주한다.

농수산물 재배·식품 가공 분야, 기능성 식품개발 분야(생물자원에서 기능성 성분을 추출, 기능성 식품 개발), 농수산 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기술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한중 FTA를 계기로 확대될 중국시장 등을 겨냥한 한류 히트 농수산 식품 상품(K-푸드)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천혜의 섬,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한 전남을 국제적인 웰빙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전남센터가 주축이 된다. 전남 관광자원을 지속 발굴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빅데이터 분석, 문화 콘텐츠 융복합,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히트 관광상품(K-투어)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 문화유산, 맛집, 전통장터, 축제, 숙박, 섬, 낚시, 뱃길 등이 연계된 통합관광 안내



박근혜 대통령과 이낙연 전남지사,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2일 여수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대나무에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 및 모바일 앱의 개발과 농어민·지역공예가·디자인전문가·스토리작가 등간소통·멘토링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여수의 화학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향후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바이오화학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거점 시설 건설과 전후방 연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GS칼텍스는 전처리 기술 이전을 통해 기존 바이오매스 수집 업체를 바이오매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 121곳과 협의체를 구성, 바이오화학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10곳의 유망 중소·벤처를 선정해 사업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朴대통령 “전남, 6차산업 전진기지 기대”

한달 보름만의 방문... 창업센터 시찰·경제인들과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농수산업 기반 위에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가치화하고, 정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6차 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 벤처 육성과 관련, “전남 센터는 미래 비전과 기업이 정신을 갖고 농수산 분야 벤처에 뛰어드는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캠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남 센터는 각 지역센터의 특화 기능과 연계해서 ‘K-푸드 벨트’를 구축하는 농수산 분야 전국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 후 이낙연 전남도지사,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의 안내에 따라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농수산 식품 인증 정보 제공을 통한 수출 지원 계획,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 계획 등을 청취했다.

또 전남 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학 농식품 벤처 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만나 환담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먹을 수 있게 조정으로 만들어 사용 후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 접시·숟가락’에 대해 “계으른 것도 아이디어가 되는 세상 같다”고 덕

답했다.

박 대통령은 시찰 후 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금융·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오찬 했다.

박 대통령의 전남 방문은 세월호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16일 진도 팽목항을 찾은 이후 한달 보름여만이며 이번이 5번째다. 지난 2013년 10월 순천 정원박람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관을 위해 순천을 찾은 것이 취임 후 첫 전남 방문이었으며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4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또 올 4월1일엔 광주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상황 보고회와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뒤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메르스 백신·치료제 아직 없다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공포심을 유발하는데에는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예방을 위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메르스의 경우 불과 3년 전인 2012년 4월 최초의 환자가 보고된 탓에 1990년대부터 개발되고 있는 에볼라 백신보다도 개발 진행 상황은 더욱

더디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물실험으로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효험이 있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을 개발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메르스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백신이 개발될 무렵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중국·홍콩 메르스 격리자 86명

중국 출장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이 44명과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사람 수가 한국인 11명을 포함해 86명으로 늘었다.

중국 보건당국은 1일(현지시간)까지 밀접 접촉자 77명 가운데 67명을 격리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 중 한국인은 5명으로 파악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K씨가 이용한 버스 승객 10명이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전날 한국인 남성을

추가 격리해 격리자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인원은 K씨를 제외하고 86명으로 집계됐다.

홍콩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달 26일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서 K씨 주변에 앉아 격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추적 조사 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1일 재입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서울을 다녀온 여행객을 특별 감시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제휴 정책 지지”

한국지방신문협회 입장 발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유력 일간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송광석·경인일보 대표이사)는 2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새로운 포털 뉴스 제휴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28일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인 가정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포털 뉴스 제

휴정책을 내놓았다. 언론계를 중심으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신규 뉴스제휴 심사와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 여부 등을 판단토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버 언론 행위 등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가 적절한 대응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내놓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와 경인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매일신문 등 각 지역별 유력 일간신문사 8개로 구성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중,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